

철도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전선 SRT 운행 증편 건의**

2024. 04

# 철도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전선 SRT 운행 증편 건의

## I. 현황 및 문제점

- 인구 105만 명의 창원시는 면적 748km<sup>2</sup>, 지역내총생산액(GRDP) 120조 6백억 원, 사업체 수 115천 개, 종사자 수 47만 명으로 광역시 수준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통합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교통편의성과 실시간 교통량 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해 도심 내부의 교통체계는 갖추어나가고 있으나, 도시 간을 잇는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에 있어서는 불모지에 가까운 실정임.
- 이를 감안해 지난 2023년 9월 1일 서울-창원간 SRT(수서발 고속열차)가 개통됨으로써 그간 동대구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에 내려 강남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지속적인 인적 물적 교류 증대로 인한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함.
- 인구 326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4위 규모의 경남은 인구 밀집지역이자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장 먼 지역으로 SRT 운행이 1일 4회(왕복 2회) 밖에 운행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는 창원시와 비슷한 도시 규모인 인구 110만의 울산광역시(왕복 25회)의 운행 횟수와 비교해 1/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승차 인원의 경우도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창원은 12,400명인 반면 울산은 80,000명으로 인구 대비 지역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지역 내 기업체와 대형 국책기관 임직원들의 업무출장과 지역민의 원정진료, 학원수업 등 고속철도 이용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는 물론 지역민 모두가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위한 고속철도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2027년 SRT 차량 추가 도입으로 열차 증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창원지역은 이미 열차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임.

## 2. 건의

- 국토의 균형발전과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철도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현실 수요를 반영한 SRT 경전선 노선의 증편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왕복으로 운행 중인 4편의 차량을 8편으로 증편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림.

2024. 4.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재호

